

타이완

SPECIAL PLAN

타이완에서 한잔 하세요

FOOD CULTURE

바다의 맛

SPECIAL PLAN

타이완 문화창의 소품

관광 격월간 2025 Jul - Aug.

no.61

섬나라의
푸르른 여름
타이완 해변 여행



TAIWAN
WAVES OF WONDER

Hazy Humid Day 진과 수퍼 더나그



2025 Jun.28 —————> Sep.28

구 타이완 전력 공사 금수 기지
신베이 시 루이팡구 동정로 361호
10:00 - 18:00 ※매주 월요일 휴관

주최

文總 Yoshitomo Nara Foundation
GACC (Japan General Incorporated Foundation)

台灣電力公司
Taiwan power company

주관

TDC
PUBLIC ART
台灣公共藝術節

협력

文部省
MINISTRY OF CULTURE

공익 후원

兆豐銀行
Mega Bank

台灣中油股份有限公司
CPC Corporation, Taiwan

제휴 기업

去趣
chicTrip

yoxi iRent

특별 감사

公益財団法人 台北事務所
日本台灣交流協會
Japan-Taiwan Exchange Association



02



26

18



32

02 Feature Story

섬나라의 푸르른 여름
타이완 해안 여행

18 Food Culture

바다의 맛

26 Special Plan

타이완에서 한잔 하세요



32 Special Plan

문화창의 소품

36 Column

타이난에서 맛있는 여름나기
이란의 돌고래
가자! 금빛 반짝이는 타이완 해변으로
신활수
타이완시 -《태양의 고향》



창간일시 2012년 5월
발행호수 61
발행일자 2025년 7월~2025년8월
대만관광협회 (台灣觀光協會) 회간
회장/발행인 簡余晏
명예회장 葉菊蘭
부회장 蘇成田, 凌璣, 莊豐如
편집고문 鍾逸寧, 陳婷妤, 張仲宇, 劉宇庭
발행 재단법인 대만관광협회
주소 타이베이 중사오동로 4단 285호 8F-1
TEL 886-2-2752-2898 FAX 886-2-2752-7680
E-mail yasir@tva.org.tw WEB www.tva.org.tw

발행처 시야국제문화사유한공사
사장 胡代華
총편집 劉恩英
총감수 李建樹
기획 張正菱
번역 金慧媛, 金那映, 宋善玉, 金雅煥
디자인 謝昀蓁, 蔡緯儒
업무부 萬麗娟, 呂麗君
발행부 江秀明
재무부 蔡慧君

주소 타이베이시 신이로 4단 265호 20층 5호
TEL 886-2-2325-2323 FAX 886-2-2701-5531
E-mail editor@v-media.com.tw
WEB www.v-media.com.tw

인쇄 엘리트 컬러 채색제판인쇄유한공사
판매가 NT\$180
ISSN 3080-3462

中華郵政北台字第1866號
執照登記為雜誌交寄



대만관광협회 서울사무소(교통부 관광청)
주소 서울시 중구 삼각동 115번지 경기빌딩 9층 902호
TEL 82-2-732-2357-8 FAX 82-2-732-2359
E-mail taiwan@tourtaiwan.or.kr WEB www.tourtaiwan.or.kr

대만관광협회 부산사무소(교통부 관광청)
주소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72 907호
TEL 82-51-468-2358 FAX 82-51-468-2359
E-mail busan@tourtaiwan.or.kr WEB www.taiwantour.or.kr



타이완관광청



타이완홀릭
Facebook



타이완홀릭
Instagram

섬나라의 푸르른 여름

타이완 해안 여름



해변.어항.해양레저.숙박.축제

타이완 본섬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1,200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안선을 품고 있다. 동부의 험준하고 웅장한 절벽에서부터 서부의 고요한 석호 어촌에 이르기까지, 해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다. 뜨거운 태양이 바다를 비추고 짙게 나는 바닷바람과 파도가 어우러지는 여름은 바다에서 섬나라의 진정한 매력을 만끽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북해안과 동부 해안을 따라 걷다 보면, 해풍 침식지형을 보여주는 예류 여왕머리(野柳女王頭)와 아침 햇살 아래 빛나는 썬센타이(三仙台) 아치교 등과 마주하게 된다. 이외에도 해안 곳곳에는 세월이 조각해 놓은 보기힘든 자연의 예술 작품들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관광 어항에 들어서면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게, 새우, 흑다랑어 등이 신선함을 자랑하며 여행자들을 맞이한다. 어항 옆에 자리한 조그마한 노점에서는 갓 구운 풍성한 해산물과 활기 넘치는 분위기가 어우러져 타이완 특유의 미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바다의 온기를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다면, 구멍조끼, 물안경을 착용하고 스탠드 업 패들 보딩(SUP), 스노클링 또는 스쿠버다이빙에 도전해 보자. 수면 위에서 바닷속 세계를 들여다보고 파도를 맘껏 즐길 수 있다. 밤이 찾아오면 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숙소 테라스에서 달빛이 바다를 물들이는 낭만적인 풍경을 감상하거나, 아침의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면 여정에 힐링이 될 것이다.

여름 바다는 그저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 축제가 펼쳐지는 무대이기도 하다. 동해안의 달빛 음악회(月光音樂會), 푸룽(福隆)의 모래 조각 예술 시즌(沙雕藝術節), 평후(澎湖)의 불꽃놀이 그리고 다평완(大鵬灣)의 요트 대회 등 자연을 넘어 문화 예술 및 지역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뜨거운 태양과 파도가 절정을 이루는 이 계절, 타이완의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푸르른 풍경을 감상하고 흥겨운 축제에 참여하며 여름 바다를 즐겨보자.



해안 산책 북부 해안선



해안도로를 따라 기암괴석 경관을 찾아서

신베이시 (新北市) 의 단수이 (淡水) 에서 출발해 타이완 성도 2 호선 해안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면 타이완 해안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코스가 펼쳐진다. 신베이시와 지룽시 (基隆市) 를 가로지르는 이 길은 타이완 양대 해안 풍경구로 불리는 북해안과 동베이자오를 연결한다. 해안 곳곳에는 오랜 세월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기암괴석이 자리하고 있어 파도 소리를 들으며 대자연이 빚어낸 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A 라오메이 녹석조는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오르면서, 해안가 암초가 청록색 해조류로 뒤덮여 있다. **B** 천연으로 형성된 기암괴석을 자리고 있는 예류지질공원이다. **C** 역사와 자연 경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해안 명소 지룡의 허핑다오공원이다.



A 라오메이 녹석조

특별한 기간에만 볼 수 있는 환상적인 해안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상순까지 푸구이차오공원(富貴角公園)의 라오메이 해변(老梅沙灘)은 환상의 초록빛으로 물든다.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오르면서 해안가 암초가 청록색 해조류로 뒤덮여 푸른 바닷물과 어우러지며 눈부신 풍경을 연출한다. 이러한 암초들은 화산암이 오랜 세월 파도에 씻기고 침식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특히 이른 아침이나 저녁 무렵 썰물 시간대에 장관을 이룬다. 이곳은 사진 촬영 마니아들의 성지이자 북해안의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여행 출발지로 꼽힌다.

B 예류지질공원

세월이 조각한 여왕머리

북해안의 기암괴석 경관을 이야기할 때 완리(萬里)의 예류지질공원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공원 곳곳에는 풍화,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기암괴석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여왕머리이다. 가늘고 긴 목과 우아한 머리 라인이 여왕의 옆모습을 연상시키며, 북해안의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여왕머리 외에도 공원에는 촛대바위(燭台石), 선녀신발(仙女鞋), 두부암(豆腐岩) 등이 자리하고 있어 마치 지질 박물관에 들어선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가까이에서 이러한 자연의 창조력을 마주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이롭고 낭만적이다.

C 허핑다오공원

역사와 자연이 만나는 장소

지룡시에 위치한 허핑다오공원은 타이완에 몇 안 되는 역사와 자연 경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해안 명소이다. 청나라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곳은 국제 교류와 항구 발전의 역사를 생생히 증명하는 공간으로 현재는 해식대와 조간대 그리고 푸른 바다의 절경으로 많은 여행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공원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천연 동굴, 별집 모양의 암석과 해식구 등이 곳곳에 자리하여 지질을 탐구하고 자녀와 함께 해안 생태계를 경험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여름날 해 질 무렵, 바다 전망대에 앉아 암석 해안에 드리워지는 일몰을 감상해 보자. 북부 해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



해안 산책 동부 해안선

웅장함과 고요함 사이에서 펼쳐지는 **슬로 트립**

북부 해안이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풍경이라면, 동부 해안은 거대한 바다와 산맥 사이의 고요한 땅이다. 화롄(花蓮) 지안(吉安)에서 타이둥(台東) 타이마리(太麻里)에 이르는 타이완 성도 11호선 도로에서는 태평양을 마주한 웅장하고 아름다운 여행 코스들이 이어진다. 길을 따라 드넓은 바다와 하늘이 끝없이 펼쳐지며, 들쭉날쭉한 암석 해안과 원주민 문화를 간직한 마을들이 자리하고 있다.

타이둥 성공진에 위치한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펜타이



날씨 좋을 때 치싱탄은 자전거를 타고 화련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치싱탄 해변 시내와 가장 가까운 바다 풍경

화련 시내에서 불과 10 여 분 거리에 위치한 치싱탄은 타이완 동부 지역에서 가장 친숙한 해안이다. 이곳은 일반적인 모래사장 해변이 아닌 매끄럽고 둥근 조약돌 해변으로 파도 칠 때 돌들이 서로 부딪히며 나는 소리는 마치 대자연의 속삭임처럼 들린다.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이면 해변 산책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하는 사람들의 모습 등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속에서 현지인들의 여유로운 생활도 느껴볼 수 있다. 맑은 날에는 멀리 칭수이 단애절벽(清水斷崖)과 화동종곡(花東縱谷)을 볼 수 있으며,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압도적인 절경을 선사한다.

스티핑 태평양 해변의 지질 경관

화련현 평빈향(豐濱鄉)에 위치한 스티핑은 동부 해안을 가장 대표하는 지질경관이다. 해식 지형이 발달한 이곳에는 해식대, 용기한 산호초, 해식구, 해식애 등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타이완 최고의 포트홀 지형으로 꼽히는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천천히 조각된 천연 조각 박물관과 같은 느낌을 선사한다. 원구 내에는 해안 산책로 등이 설치되어 있어 가까운 거리에서 지형과 조간대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질과 자연에 관심이 많은 여행자라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곳이다. 암석 해안가에 서서 멀리 태평양을 바라보면 거센 바닷바람과 몰아치는 파도와 함께 동부 해안의 원시적이고 웅장한 기운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싼센타이 전설이 빛어낸 바다 위 절경

타이동현(台東縣) 청공진(成功鎮)을 방문할 경우, 싰센타이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대표적인 해안 랜드마크이다. 싰센타이는 해안에서 떨어진 작은 섬으로 독특한 외형의 아치교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3명의 신선이 이곳에 머물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곳을 찾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이른 아침 시간으로 태평양 해수면 위로 해가 떠오르면 교량과 산호초 바위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이 연출된다. 섬 안에는 원시 해안 식물과 동굴 지형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산책로를 따라 한 바퀴 돌며 섬의 자연 생태계도 경험할 수 있다.



스티핑에서는 해식 지형이 발달하여 해식대, 해식구, 해식애 등 다양한 경관을 볼 수 있다.



관광 어항

항구에서 맛보는 가장 신선한 타이완의 맛





A 북부 신베이시의 구이허우 어항이다. B 북해안의 완리에는 매년 가을이 완리대게 시즌으로 유명하다. C 신베이시의 구이허우 어항에는 매년 가을 완리 대게 시즌이면食客들이 온다. D 이란 따시어항의 요리점에 판매한 음료는 현지 특산물 스화로 만든 레몬 맛 스화음료와 스화동이다. E 매년 4-5월이면 흑다랑어 시즌이 시작되어 동강은 신선한 다랑어 요리 전문점에 맞출 수 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타이완은 쿠로시오 해류와 오야시오 해류가 교차하는 해역에 위치하여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이루며, 어업은 국가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왔다. 특히 서부 연안에는 크고 작은 어항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으며 바다는 어민들의 생업 공간인 동시에 육지와 해양 문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터전이기도 하다. 시대가 변화하고 기후와 해양 자원이 변화하면서 많은 어항들은 점차 관광, 음식 및 지역 문화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관광 어항으로 변화를 꾀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안 지역의 일상을 경험하고자 하는 여행자들의 발걸음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북부 신베이시의 구이허우 어항(龜吼漁港)에는 매년 가을 완리(萬里) 대게 시즌이면 전국에서 많은食客들이 몰려드는데, 어부 마켓(漁夫市集) 안에 자리한 전문 요리점들은 대게의 익힘 정도와 신선한 맛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는데 능숙하여, 손님들은 간단한 찜 요리 만으로도 진한 게 내장과 쫄깃한 게살의 풍미를 즐길 수 있다. 동쪽으로 더 이동하면 이란(宜蘭)의 따시어항(大溪漁港)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은 해새우의 주요 어장으로 어항 주변에서는 갯 잡은 신선한 어획물들을 직접 볼 수 있다. 투명한 새우 껍질은 은은하게 붉은빛을 띠며, 살짝 데치거나 튀기거나 숯불에 굽는 조리 등에 상관없이 맛이 일품이다. 이 두 어항은 비록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어장과 가까워 신선한 해산물들을 맛볼 수 있어 현지인들은 물론 여행자들에게 해산물의 성지로 불린다.

중남부 지역 어항을 둘러보자. 타이중(台中) 우치어항(梧棲漁港)은 타이완 최대 규모의 수산물 직거래 시장으로 유명하다.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 시장에는 각종 생선류, 조개류, 냉장 및 갯 잡아온 어획물들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막 손질한 신선한 생선회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시장 밖에 준비한 음식 노점들도 눈길을 끄는데 굴 튀김 커디에(蚵嗲), 고동 술썰 요리인 샤오저우뤄(燒酒螺), 오징어 구이 등의 냄새가 사방에서 진동한다. 이렇듯 우치어항에서는 시장을 구경하면서 가장 서민적인 방식으로 해산물 요리도 즐기는 특별한 경험이 가능하다.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흑다랑어의 고향으로 불리는 핑둥(屏東) 동강(東港)에 이르게 된다. 매년 4, 5월이면 흑다랑어 시즌이 시작되어 어항은 활기가 넘치는데, 신선한 다랑어들은 경매를 통해 전문 요리점으로 옮겨진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불에 살짝 구운 뱃살과 신선한 다랑어회로 부드럽고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는 식감을 자랑한다. 이로 인해 핑둥 동향은 진정한 미식가라면 매년 꼭 방문해야 하는 맛의 성지로 자리매김하였다.

관광 어항의 매력은 신선한 수산물과 요리뿐만 아니라, 실제 어촌 생활상과 온기에서도 비롯된다. 바다가 보이는 시장에서부터 바람에 실려오는 바다 내음과 음식 냄새가 감도는 골목에 이르기까지, 여행자들이 타이완 해안 문화를 이해하는 데 더없이 좋은 출발점이 되고 있다.

해양 스포츠

서핑과 함께
타이완의 바다에서 놀아보자!



A 화련의 고래와 돌고래 관찰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바다를 경험할 수 있다. **B** 윈드서핑은 요즘 타이완 바다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인기 해양 액티비티다. **C** 화련 두란에는 파도로 인해 초보자와 프로 모두에게 인기 있는 곳이다. **D** 잔잔한 수면 위에서 노를 젓는 SUP 패들링을 체험하며 편안한 자유로움을 느낀다.

과거에는 수상 안전과 정책 통제로 인해 타이완의 해양 스포츠의 발전이 제한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야 관련된 법규가 완화되고 수상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바다 친화적인 해양 스포츠 활동이 비로소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요즘에는 다이빙, 서핑, 윈드서핑부터, SUP 패들링, 카누, 고래와 돌고래 감상과 같은 모든 종류의 해양 액티비티가 타이완 바다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인기있는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서핑을 즐기려면 북해안의 중자오완(中角灣)을 추천한다. 이곳은 적절한 지형과 일정한 파도로 인해 초보자와 프로 모두에게 인기 있는 곳이다. 이란의 와이아오(外澳)와 우스어항(烏石漁港)은 길은 바닷가 마을 분위기로 매년 여름 서핑 보더와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SUP는 풍경을 즐기며 할 수 있는 액티비티로 신베이 선아오의 해식동굴, 화련의 청수이 단애절벽 등은 가파른 산벽과 청록색 바다를 바라보면서 노를 저으면 마치 태평양 위에 떠 있는 듯한 경치를 즐길 수 있다. 물 가까이서 역동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면 카누를 추천한다. 이란의 동아오완의 바다는 고요하고, 평후의 아이먼(隘門) 해변은 바다 상태가 안정적이며 시야가 넓다. 만약 수중 다이빙을 원한다면 평동의 샤오류쑤, 켄딩의 허우뻬후(後壁湖), 북부 동베이자오 룡동(龍洞) 등과 같은 곳은 모두 산호초

와 열대어, 높은 투명도의 수질을 가지고 있어 해마다 дай버들의 순례지로 주목받고 있다. 고래와 돌고래 관찰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바다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란 토우청, 화련항과 타이둥 청공이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모든 연령대가 다 즐길 수 있는 해양 체험이다.

해양 경관의 중심부로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액티비티가 있다. 동베이자오 푸룽(福隆)은 태평양과 황시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안쪽은 강, 바깥쪽은 바다로 이루어진 독특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잔잔한 물 위에서 노를 젓는 SUP 패들링을 체험하며 가장 편안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같은 동베이자오에 위치한 룡동은 타이완의 유명한 다이빙 및 스노클링 명소로 알려져 있다. 바다를 향한 절벽과 수중 암초 군락이 얹혀 풍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며, 바다 밑을 탐험하면 다채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타이완 동부 해안선의 작은 해안 마을인 타이둥 두란(都蘭)은 원주민의 정취가 느껴지는 곳으로 많은 서퍼들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천국이다. 타이완 최남단에 위치한 켄딩은 дай버들이 허우뻬후의 해저 세계에서 열대어 떼가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수온이 쾌적하고 시야가 맑아 매년 다이빙 시즌이 되면 많은 дай버들이 찾는 핫스팟이다.





바다 전망 숙소

바다 전망의 스테이케이션



여름은 바다와 가까워지기 좋은 계절이다. 햇볕이 수면 위를 내리쬘고 짙짙한 바닷바람이 공기에 가득할 때 바다 근처에 있는 숙소를 찾아 여유를 즐기기에 완벽한 시기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거나 모래사장에서 산책하거나 바다에 뛰어드는 등 바다와 함께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자.

이란 투우청에 위치한 OA HOTEL은 와이아오 해변과 우스어항 사이에 있어 바다 전망과 해산물 요리를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다. 우시항은 이란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항구로 신선한 현지 해산물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래와 돌고래 관찰 투어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인근 와이아오 해변의 모래사장은 넓고 평평하며 안정적인 파도 덕에 타이완 전역의 서퍼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OA HOTEL은 서핑과 바다의 이미지를 공간 디자인에 반영했으며 특히 최상층에 위치한 노천탕은 구이산다오의 바다 모습을 바라보며 온천에 몸을 담글 수 있어 많은 여행객의 마음속에 꿈의 오션뷰 숙소로 각인되어 있다.

산과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 번에 즐기면서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완벽한 시설과 여가 공간을 원한다면 화롄의 파글로리 호텔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해발 220 미터의 해안 산맥 북쪽 끝에 위치한 이 호텔은 먼 태평양의 푸르름을 바라볼 수 있고 초록빛이 층층이 펼쳐진 계곡 경치를 돌아볼 수 있다. 이곳은 타이완에서 두 가지 풍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휴양 호텔 중 하나다. 2023년에 다시 문을 열면서 테마 스위트, 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놀이공간 등 새롭게 단장하여 여행객들이 산과 바다 사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다. 호텔 옆에 위치한 파글로리 해양 공원은 화롄의 대표적인 휴양 시설로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루 종일 해양 활동을 즐기기에 적합하다.

타이완의 최남단인 켄딩에 위치한 Hotel dùa는 남부의 새로운 바다 풍경의 미학을 불어넣었다. 이 호텔은 켄딩에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새롭게 개장한 호텔로 켄딩파지에 문화 골목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해변과 쇼핑 거리까지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현지 생활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는 새로운 브랜드의 호텔이다. 이 호텔은 친환경 건축을 디자인의 핵심으로 산과 바다의 전망과 현대적인 간결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자연과 평온함이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최상층에 설치된 파노라마 수영장으로 수영장 옆에 서면 켄딩과 바스 해협이 만나는 지점을 내려다보며 모든 순간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는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A 켄딩에 위치한 Hotel dùa는 자연과 현대적인 간결함이 조화를 이루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파노라마 수영장이다. **B** 화롄의 파글로리 호텔 이제는 새롭게 단장하여 여행객들이 산과 바다 사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다. **C** 우스어항에 위치한 OA HOTEL은 현대적인 호텔로 독특하고 고아한 회전 계단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최상층에 위치한 노천탕에서는 구이산다오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



해양 축제

축제로 즐기는 **오션 파티**

사진/ 북부해안 및 관음산 국가풍경구 제공

바다로 둘러싸인 이 섬에는 햇살 가득한 해변과 푸른 바다 전망뿐만 아니라 활기차고 창의적인 해양 축제가 여행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북쪽에서 남쪽,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각각의 축제는 바다와 공생하는 타이완의 생활 리듬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축제를 선택하여, 바다를 여행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보자.

북부의 '예류 석광 야간 여왕머리 탐방'과 '푸룽 모래 조각 예술 시즌'은 여름철 해안가 활동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다. 늦봄과 초여름쯤에 '예류 석광'행사가 시작되어 낮에만 개방되던 지질 공원이 새로운 야간 조명 쇼를 선보이며 별빛과 불빛 아래 기암괴석 사이를 걸으며 환상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한편, '푸룽 모래 조각 예술 시즌'은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푸룽 해수욕장에서 열리며, 전 세계 모래 조각가들이 모여 섬세하면서도 멋진 모래 조각을 만들어내어, 가족 나들이와 사진 촬영을 위한 완벽한 무대이다.

매년 봄과 여름이 교차하는 시기에 열리는 '핑후 해상 불꽃 축제'는 타이완의 대표적인 섬 액티비티라고 할 수 있으며, 4 월

말부터 6 월 말까지 매주 마공관음정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이 진행된다. 불꽃놀이와 드론 조명 쇼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섬의 여름밤에 대한 여행자들의 낭만적인 상상에 불을 지핀다. 또한 핑후에서는 매년 11 월 '국화섬 핑후 해상횡단 마라톤'이 개최되어, 러너들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며 바닷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즐거움과 광활한 바다 바람의 세례를 만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년 여름 열리는 '동해안 대지예술제'가 창의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동해안 해안선 장관을 배경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축제 일정은 보통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예술가들을 초대해 현지 자연 경관과 원주민 문화를 조경 예술로 변화시켜, 땅과 공명하는 예술적 여정을 이어주는 작품을 현장에서 제작한다. 정적인 전시 외에도 '월광·해 콘서트'도 놓치지 말자. 달빛과 파도 소리 속에서 뮤지션과 지역 연주자들이 무대에 올라 자연에 가까운 어쿠스틱 사운드의 향연을 선사하며 해안 특유의 리듬과 영혼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진/ 평후현정부(澎湖縣政府) 제공

봄과 여름이 교차하는 시기에 열리는 평후 해상 불꽃 축제는 타이완의 대표적인 섬 액티비타이다.



사진/ 동베이지오 및 이란 해안 국가풍경구 제공



A 푸릉 모래 조각 예술 시즌은 여름철 해안가 활동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B 여름에 열리는 동해안 대지예술제에서 전시했던 창의적인 예술작품이다.

타이완 travel 해안여행

관광 어항

구이허우 어항 (龜吼漁港)

신베이시 완리구에 위치한 구이허우 어항은 예류지질공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도보로 약 25 분 정도 소요되므로 택시를 이용하거나, 지류객운 1068 번 또는 953 번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좋다.

따시 어항 (大溪漁港)

이란현 토우청진에 위치하고 있으며, 타이완 철도를 타고 따시역에서 하차한 후 택시를 탈 수 있다. 걸어서 가고 싶다면 어항 방향으로 약 20 분이 걸린다.



평후 해상 불꽃 축제
4 월 말부터 6 월 말까지

우치 어항 (梧棲漁港)

타이중시 청수이구 (清水區)에 위치하고 있으며 타이완 철도를 타고 타이중 역에서 하차한 후, 타이중 시 버스 307 번을 타고 갈 수 있다.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경우, 고속철도 타이중역에서 청수이 (清水)역까지 타이완철도로 환승한 후, 타이중시 버스 688 번을 타고 청수이역으로 이동하면 된다.

동강어항 (東港漁港)

핑둥현 동강진에 위치하며, 고속철도 궤잉 (左營)역에서 타이완 버스 다평완류추선 (大鵬灣琉球線)을 타고 동류선부두 (東琉線碼頭)에서 하차하는 것이 좋다. 핑둥 시내에서 출발하는 경우 핑둥 환승역에서 핑둥 버스 동강선 8203 번을 타면 된다.

다이빙 및 스노클링

샤오류추

윈드서핑

다평완

샤오류추

Hotel dùa 컨딩

타이베이시

북부 해안선

지룽시

주웨이 어항

난랴오 어항

타오위안시

신베이시

따시 어항

SUP 패들링

와이아오

우스 OA HOTEL

고래와 돌고래 관찰

우스항

신주시

신주현

이란현

우치 어항

마오리현

왕공 어항

타이중시

장화현

화론헌

난터우현

동스 어항

원린현

자이시

자이현

타이난시

가오슝시

타이둥현

핑둥현

동강어항

해변 전망 투숙

우스 OA HOTEL (烏石 OA HOTEL)

Add 이란현 토우청진 우스강로 301 호
(宜蘭縣頭城鎮烏石港路 301 號)

Web www.oahotels.com.tw

파글로리 호텔 (遠雄悅來大飯店)

Add 화론헌 서우평향 산랑 18 호
(花蓮縣壽豐鄉山嶺 18 號)

Web www.farglory-hotel.com.tw

Hotel dùa 컨딩 (Hotel dùa 墾丁)

Add 핑둥현 형춘진 컨딩로 웬화항 5 호
(屏東縣恆春鎮墾丁路文化巷 5 號)

Web www.hoteldua.com/kt/tw

여행 꿀팁 / 교통방식

푸구이자오공원 / 라오메이 녹색조 [스면]



북부 해안선

타이베이 시내에서 북쪽 해안까지는 차로 약 1 시간이 걸린다.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여행하기 좋아 늘 인기 있는 곳이다. 해안선을 따라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타이완에서 가장 편리한 해안 관광루트라고 할 수 있다. 타이완 버스는 3개 노선을 운행하며, 해안선에 있는 대부분의 명소로 갈 수 있다. 황관북해안선 (皇冠北海岸線), 단수이에서 출발하여 라오메이 녹색조 (老梅綠石槽)와 예류지질공원으로 갈 수 있고, 빈하이치지선 (濱海奇基線) 지룽에서 출발하여 허핑다오 공원으로 갈 수 있다. 황진푸룽선 (黃金福隆線)은 루이팡 역에서 출발하여 푸룽과 룽둥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이다.

북부
해안선

동부 해안선

동부 해안선은 타이완 동부의 화롄 (花蓮)과 타이둥 (台東) 두 개의 현을 아우르며, 총 길이는 168 킬로미터이다. 이 도로는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하며 택시나 렌터카를 이용해 자유롭게 여행할 것을 추천한다. 특정 관광지를 방문하고자 한다면, 타이완 하오싱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화롄 지역에서는 화롄 시내에서 출발하는 후에란 동해안선 (沱瀾東海岸線)과 위리 (玉里)역에서 출발하는 위창핑빈선 (玉長豐濱線)이 있으며, 모두 산셴타이 (三仙臺)을 경유한다. 타이둥 지역에서는 타이둥 시내에서 출발하는 동부 해안선을 통해 산셴타이로 갈 수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동부 지역의 타이완 하오싱 버스는 순환버스 방식으로 운영되며 관광객들이 해당 관광지를 충분히 즐긴 후, 원래 탔던 버스를 다시 타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국가풍경구 & 국가공원

북부해안 및 관음산 국가풍경구
(北海岸及觀音山國家風景區)Web www.northguan-nsa.gov.tw동베이자오 및 이란 해안 국가풍경구
(東北角及宜蘭海岸國家風景區)Web www.necoast-nsa.gov.tw다핑완 국가풍경구
(大鵬灣國家風景區區)Web www.dbnsa.gov.tw동부해안 국가풍경구
(東海岸國家風景區)Web www.eastcoast-nsa.gov.tw핑후 국가풍경구
(澎湖國家風景區區)Web www.penghu-nsa.gov.tw컨딩 국가공원
(墾丁國家公園)Web www.ktnp.gov.tw

동해안 대지예술제
7월부터 9월까지

서핑 동허

산셴타이 청공

고래와 돌고래 관찰 청공

파글로리 호텔 서우평

치싱탄 신청

고래와 돌고래 관찰 화롄시

다이버 및 스노클링 공랴오

카누 공랴오

SUP 패들링 루이팡

허핑다오공원 지룽

구이허우 어항 완리

예류지질공원 완리

중자오완 서핑

스면

진산

완리

지룽시

루이팡

공랴오

시우린

신청

화롄시

서우평

평빈

청공

동허

동부 해안선

타이완인의 식탁 바다의 맛

글 / 편집부 사진 / Vision Create

위탕에서

볶음요리까지

그리고

바다 해산물 특산품

타이완에서 바다는 단순히 섬 주변을 둘러싼 것 이상의 의미로 타이완 사람의 생활과 미각의 기억 속에 스며들어 있다. 아침 식탁에 뜨거운 어탕 한 그릇부터 심야 리차오오텐의 시끌벅적한 분위기, 그리고 땅과 가족의 기억을 이어온 해산물 특산품까지, ‘바다의 맛’은 타이완인의 식탁에서 가장 진솔하고 깊은 존재이다.

이 바다의 맛은 일상에서 세 가지 대표적인 어탕 스무위(虱目魚, 갯농어), 루위(鱸魚), 우궤위(吳郭魚)가 있다. 한 그릇의 국물이 담고 있는 서민 생활과 식문화의 지혜를 살펴보고, 이어서 리차오오텐을 탐방해보자. 이곳은 술안주와 해산물의 집합 장소이며 즉흥적인 삶의 무대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타이완 각지에서 온 해산물 특산품을 안핑(安平)의 새우과자, 화롄의 가다랭이포튀김, 동강(東港)의 벚꽃새우, 단수이(淡水)의 어묵, 가오슝(高雄)의 어란, 평후(澎湖)의 XO 소스 등. 한입 먹을 때마다 지역의 풍경과 추억들이 바다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풍성한 여정이 될 것이다.

C 타이난린 우츠스무위의 세심한 사장님
이 생선 손질을 잘해서 여기 스무위탕은
국물에 가시 없고 국물 맛에도 섬세하다.

상쾌한 하루는 위탕으로 시작



A



A 치타오통 사오자위탕은 통째로 신선한 루위를 사용해 국물을 끓이며, 생강채, 파, 약간의 청주만을 더해 맛을 낸다. B 이마네리 센위탕은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가게로, 메인 메뉴인 우꿔위탕은 국물이 부드럽고 입에 잘 맞다. C-1 현지인들의 아침 겸 점심 메뉴 생선 살을 덮밥도 인기가 많다.



C-1

많은 타이완인에게 한 그릇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신선한 위탕(魚湯, 어탕)은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일상의 안정감을 주는데 이러한 식생활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타이완은 대부분 도시가 해안가에 형성되었는데, 어부들이 새벽에 바다에서 갓 잡아온 신선한 생선을 곧바로 아침 시장에 파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아침 시장의 상징적인 풍경이 되었다. 위탕은 ‘신선하게 바로 끓인’ 것이 중요하기에 아침에 사온 생선은 곧장 아침 식탁 위에 올랐다.

어업 및 수산물 양식 산업의 발전과 함께 스무위(虱目魚, 밀크 피쉬), 루위(鱸魚), 우귀위(吳郭魚) 위탕의 주 재료가 되었다. 시장 내 작은 음식점이나 골목길의 생선 국물 전문점에서 이 생선들은 각각의 독특한 맛을 자랑하며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생선가게는 오전 6~7시부터 영업을 시작하는데, 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생선 국물을 마시는’ 단골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다. 이는 위탕의 타이완 아침 문화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보여준다. 한 그릇의 뜨거운 위탕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하루의 시작을 준다.

타이베이 중산구에 위치한 치타오통 샤오자위탕은 현지인들이 아침 식사로 자주 찾는 곳이다. 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가게는 통째로 신선한 루위를 사용해 국물을 끓이며, 생강채, 파, 약간의 청주만을 더해 맛을 낸다. 불필요한 양념은 배제하고 루위의 신선함과 달콤함을 그대로 살려 가장 순수한 루위 국물의 맛을 제공한다. 타이베이 중정구에 위치한 이마네리 센위탕은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있는 가게로 우귀위탕만을 전문으로 판매한다. 우귀위에 생강채, 지옌타(九層塔)로 비린내를 제거하여, 국물은 부드럽고 입에 잘 맞는다. 포장이나 매장 식사 모두 항상 손님들로 붐빈다.

신베이시 쑤충구에 위치한 타이난린 우즈스무위에서는 두툼하고 부드러운 스무위 탕을 맛볼 수 있다. 이 가게는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방문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깔끔한 국물에 가시 없는 위탕 맛이 섬세하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겨자 간장을 곁들여 먹거나, 생선 살을 덮밥도 매우 인기가 많아 현지인들의 아침 겸 점심 메뉴로 사랑받고 있다.



A 치타오통 샤오자위탕 七條通蕭家魚湯

Add 타이베이시 중산구 중산북로 1 단 121 항 24-1 호
(台北市中山區中山北路一段 121 巷 24-1 號)

Open 08:00-18:30, 토요일 08:00-15:30, 일요일 휴무

Access MRT 중산 (中山) 역 2 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5 분



B 이마네리 센위탕 以馬內利鮮魚湯

Add 타이베이시 중정구 항저우난로 1 단 3 호
(台北市中正區杭州南路一段 3 號)

Open 07:00-14:00, 일요일 휴무

Access MRT 산다오사 (善導寺) 역 2 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7 분



C 타이난린 우즈스무위 台南林無刺虱目魚

Add 신베이시 쑤충구 다즈제 173 호
(新北市三重區大智街 173 號)

Open 06:30-13:30, 월요일 휴무

Access MRT 산허 중학교 (三和國中) 역 1 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10 분

해산물 요리 문화의 러차오덴



A 현재의 러차오덴은 겉모습은 비슷비슷하지만, 각각의 특색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전형



러차오펜은 실제로 타이완식 이자카야 또는 술집으로 식사와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다. 러차오펜의 기원은 전통적인 '해산물 가게'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식당들은 신선한 어획물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가게 앞에는 얼음 위에 다양한 신선한 해산물이 진열되어 있거나, 수조 속에서 물고기나 새우가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해산물 식당은 갓 잡은 신선한 재료를 요리해 제공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해산물 식당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낮지 않다. 이런 이유로 저렴하면서도 활기찬 러차오펜이 생겨났다. 이들은 해산물 식당의 핵심 특징인 신선한 해산물과 갓 튀겨서 조리한 요리법을 고수하면서도,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요리에 주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해산물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러차오펜은 겉모습은 비슷비슷하지만 각각의 특색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어떤 곳은 해산물과 오리 고기도 함께 판매한다. 또 다른 곳은 살아있는 새우 요리를 전문으로 하여, 심지어 타이완만의 전통 요리를 창조해내기도 한다. 예를 들면 후추 새우와 같은 요리다. 이러한 다양성은 타이완 사람들의 유연하고 변화무쌍한 식문화 철학을 반영하며 러차오펜은 현지 식문화 관철하는 중요한 장소다.

타이베이 라우닝 야시장(遼寧夜市)에 위치한 어려우청 휘하이셴은 해산물과 거위고기를 결합한 대표적인 식당이다. 3층 건물의 외벽에는 네온사인인 가득 걸려 있어 밤이면 더욱 활기차 보인다. 입구에는 그날 들어

온 해산물이 진열된 좌판이 길게 늘어서 있어 마치 수산시장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준다. 해산물 외에도 이 가게의 대표 메뉴인 거위고기 요리도 매우 인기가 많다. 기름지고 짭짤한 맛이 일품인 거위고기는 술과도 잘 어울려 이 가게의 양대 인기 메뉴로 자리 잡았다.

또 다른 곳으로는 타이베이의 시민 대로에 위치한 따다오 18호 일품 러차오이 있다. 이곳은 전형적인 타이완 러차오펜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타이완 볶음집 요리를 모아놓은 메뉴로 유명하다. 덕분에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 회식을 하거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현지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곳 중 하나이다.

후추 새우를 전문으로 하는 일품 생새우는 다양한 새우 요리를 주력으로 하는 특색 있는 러차오펜이다. 후추 새우는 웅기에 마늘, 후추 등의 향신료를 넣고 볶아 만든 요리로 1990년대부터 타이완 전역에서 유행한 창의적인 요리다. 맥주와 함께 즐기기에 아주 좋다. 가게 내부에서는 다양한 볶음 요리들을 제공하며, 특히 해산물 요리의 선택지가 매우 풍부하다.

B 러차오펜에서 당일의 신선한 식재료는 당일예 바로 조리하는 요리법으로 다양한 요리를 만든다. C 후추 새우는 웅기에 마늘, 후추 등의 향신료를 넣고 볶아 만든 요리이다.



B



C



A 어려우청 휘하이셴 鵝肉城活海鮮

Add 타이베이시 중산구 라오닝제 77호
(台北市中山區遼寧街 77 號)

Open 16:30-01:00

Access MRT 난징 푸싱 (南京復興) 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4분



B 따다오 18호 일품러차오 大道18號精緻熱炒

Add 타이베이시 다안구 시민대로 4단 18호
(台北市大安區市民大道四段 18 號)

Open 17:00-01:00

Access MRT 중샤오 푸싱 (忠孝復興) 역 5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5분



C 일푸생새우 시민점 (一品活蝦市民店)

Add 타이베이시 송산구 시민대로 4단 145호
(台北市松山區市民大道四段 145 號)

Open 17:00-02:00

Access MRT 중샤오 둔화 (忠孝敦化) 역 1번 출구, 도보 약 6분 거리

해산물 특산품 기념품

타이완의 풍부한 어획물은 각 지역의 독특한 해산물 특산품의 재료가 된다. 길거리 간식에서 선물용까지, 신선한 해산물 식품들은 각 지방 풍토를 담은 타이완 사람들의 추억 속의 먹거리이다.



단수이위수 淡水魚酥

금빛으로 바삭하게 튀겨진 어포는 단수이 라오제의 인기 있는 간식으로 작은 물고기들을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짭짤하고 향긋하여 입맛을 돋우며,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현지인들의 어린 시절부터 먹던 익숙한 맛이다.

쉬이위수 鮮義魚酥

Add 신베이시 단수이구 중정로 184 호
(新北市淡水區中正路 184 號)



화롄차위수 花蓮柴魚酥

화롄(花蓮)은 과거 군해 가다랑어로 만든 차위(柴魚)로 유명하며, 이후 공장들이 산업 박물관으로 변모하면서 차위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차위수는 차위 조각에 맥아와 참깨를 넣어 만든 영양 간식으로 짭짤하고 달콤한 맛과 고소한 향이 가득하다.

치싱차위 박물관 七星柴魚博物館

Add 화롄현 신청향 치싱제 148 호(花蓮縣新城鄉七星街 148 號)



가오슝 우위즈 高雄烏魚子

이 해산물 요리는 겨울에 타이완으로 이동하는 우위(烏魚)로 만들어졌다. 소금에 절여 햇볕에 말린 우위즈는 진하고 짜고 향긋한 맛이 난다. 종종 구워서 먹거나 썰어서 먹으며, 흰 무나 마늘쫄과 함께 먹기도 한다. 또한 우위즈는 타이완 고급 선물의 대명사이다.

진팡 우위즈 珍芳烏魚子

Add 가오슝시 옌청구 치젠 3로 131-2 호
(高雄市鹽埕區七賢三路 131-2 號)



핑동 벚꽃새우 屏東櫻花蝦

타이완은 벚꽃새우를 잡을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단 두 곳 중 하나다. 작고 밝은 붉은색의 벚꽃새우는 햇볕에 말린 후 강한 향을 풍긴다. 볶음밥 등의 요리 재료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간식으로 바로 먹을 수도 있다.

동강 어항 수산물 직판장 東港漁港漁產品直銷中心

Add 핑동현 동강진 차오롱로 39 호
(屏東縣東港鎮朝隆路 39 號)



타이난 샤뱁 台南蝦餅

튀긴 샤뱁은 바삭바삭하고 강한 새우 맛이 난다. 타이난 안핑구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거리 곳곳에서 샤뱁을 파는 가게를 찾아볼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맛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 튀기지 않은 버전도 있다.

더이 샤뱁 得意蝦餅

Add 타이난시 안핑구 안핑로 123 호
(台南市安平區安平路 123 號)



핑후 XO 장 澎湖 XO 醬

가리비, 새우 등의 핑후 해산물을 원료로 하여 마늘, 고추 등의 재료를 추가하여 만든 풍부하고 풍미가 깊은 양념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제품은 면이나 밥에 모두 잘 어울려, 인기 있는 선물로 자리 잡았다.

핑위 191 澎玉 191

Add 타이베이시 다둥구 디화제 1 단 191 호
(台北市大同區迪化街一段 191 號)



매년에 단 한 번의 기회 8 월 , 타이완으로 미식여행을 떠나보자 !

‘해산물 - 신선한 맛의 축제’를 테마로 선보이는 신선하고 풍성한 타이완 해산물

매년 8 월은 타이완에서 미식 여행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이다. 타이완 미식전은 타이완 관광 가이드에서 빼놓지 않고 소개되는 국제적인 행사로, 오는 8 월 1 일부터 4 일까지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 1 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올해에는 ‘해산물 - 신선한 맛의 축제 (海鮮—鮮味款待)’를 테마로 하여 타이완의 맛 (探索台味), 최우수 특산물 (金牌特物), 이국 미식 (異國美食), 그리고 푸드 아트 갤러리 (藝鳴驚人) 등 4 개의 전시 구역을 마련하고, 타이완 미식의 진수와 타이완 전역의 신선한 해산물, 특산품을 한데 모아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민족, 요리 스타일, 풍부한 식재료들이 어우러진 타이완 미식의 다양한 면모를 선보일 예정이다.

타이완의 각종 대회에서 우승한 차, 술, 커피 기념품까지 윈스톱 쇼핑

타이완 미식전은 각종 산지 식재료부터 식탁 위에 오르는 요리까지 총 집결하는 자리이다. 산지 직송의 신선한 야채와 과일, 해산물 등의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이완 각지의 미쉐린 별 구르망 추천 요리와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의 미쉐린 요리의 향연을 즐기며 타이완 미식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또한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커피, 차, 초콜릿 그리고 잼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프리미엄 기념품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 특히 세계 위스키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타이완 OMAR 위스키와 미식전 한정 타이완 칵테일은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장에서 즉시 갓 요리된 음식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맛을 사랑하는 타이완 미식을 가지고 돌아가 집에서도 즐길 수 있다.

셰프의 해산물 요리 쇼, 요리 대가에게 배우는 타이완 요리 클래스, 미식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

매년 열리는 타이완 미식전에서는 유명 셰프와 요리 대가들이 초청되어 화려한 미식 축제가 펼쳐진다. 국제대회에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많은 셰프들이 과일 카빙, 브레드 아트, 풍당, 폴드 슈가 등의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선보이며, 현장에서는 타이완 해산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요리 쇼와 요리 강연을 비롯해 요리 대가가 직접 가르치는 요리 클래스도 진행된다.

타이완 미식전은 타이완 전역의 신선한 해산물을 선보이며 전 세계인들을 환영하는 자리로 미식전을 즐긴 후에는 검사검사 타이완의 랜드마크인 타이베이 101 도 둘러볼 수 있다. 다채로운 맛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미식의 섬 타이완으로 열린 떠나보자.



A 타이완 미식전은 각종 산지 직송의 해산물로 만든 요리를 맛볼 수 있다. B 미식전 현장에서는 타이완 해산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요리 쇼도 있다.



Facebook



Instagram

타이완 미식전

기간 8 월 1 일 (금) - 8 월 4 일 (월) 10:00-18:00

장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 1 관

공식 사이트 <https://www.tcetva.tw>

‘타이완에서 한잔 하세요’ 시리즈 시원한 여름을 나기 위한 디저트 편

글 / 편집부 사진 / Vision Create

매년 여름이 돌아오면 타이완 곳곳에 거리와 골목에서 시원한 디저트를 만날 수 있다. 특히 무더운 오후 부드러운 또우화(凍)에 토픽재료를 가득 넣은 센차오동(선초젤리), 혹은 투명하고 반짝이는 아이워 젤리 한 그릇을 먹으면 체온이 내려갈 뿐만 아니라 마음도 시원해진다. 티엔탕 외에도 타이완 사람이 먹으면서 자란 전통 차가운 음료도 놓칠 수 없는 메뉴다. 단짠의 조합인 양타오빙, 새콤달콤한 완메이탕, 상쾌하면서 느끼함을 해소해 주는 칭차오까까지. 더운 여름날 갈증을 해소해 주는 든든한 음료들이다.

소개한 이 디저트들은 단순히 여름 더위를 이겨내는 도구가 아니라, 타이완 사람의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시장 안의 익숙한 노점상부터 라오제에서 수십 년 지켰던 가게까지, 모든 음식에서 세월의 맛을 느낄 수 있다. 현지 사람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일상의 소확행을 상징하고, 여행객에게는 달콤하고 차가운 맛을 한 입 먹어보며 가장 정통적인 타이완의 맛을 바로 느낄 수 있는 미각여행이 될 것이다.

‘타이완에서 한잔 하세요’ 시리즈

차, 술, 커피——타이완의 일상적인 음료는 최근 몇 년 동안 타이완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음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목적으로 타이완을 찾는 여행객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번 ‘타이완에서 한 잔’ 시리즈의 세 번째 편에는 타이완의 전통 디저트를 ‘마시는’(혹은 먹는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이 디저트들은 대부분 차가운 설탕물 음료 형태로 등장하며, 안에는 센차오, 아이워, 편귀, 편타오 등 미끈미끈한 재료가 들어가 있다. 한 입만 먹어도 목구멍에서 가슴 속까지 차가워지는 느낌이다. 심지어 겨울이 되면, 따뜻하고 단 국물로 변신하여 일 년 내내 늘 함께할 수 있다. 일 년의 절반을 무더위 속에서 보내는 타이완인에게 이 ‘한 잔’ 디저트는 더위를 식혀줄 뿐만 아니라 기분을 달래주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걱정까지 녹여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사려깊은 여름 친구라고 할 수 있겠다.

싸오또우화(驢豆花)의 인기 메뉴 바나나 또우화이다.

小涼院

아이위를 만든 야생 식물 아이위즈



아이위

타이완 산림이 주는 청량함

아이위는 타이완 중남부의 산에서만 자라는 야생 식물인 아이위즈로 만든 타이완 고유의 천연 젤리다. 말린 아이위즈를 물에 넣고 10 분 정도 부드럽게 문지르면 씨앗 표면의 펙틴이 자연적으로 방출되어 투명하고 부드러운 젤리로 굳어진다. 인공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타이완의 여름을 대표하는 가장 천연이자 상큼한 디저트라고 할 수 있다.

타이베이 다안구의 골목길에 위치한 샤오량위엔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비록 아이스크림 전문점이지만, 아이스크림 못지않은 아이위 음료도 인기가 많다. 가게 안의 스타일은 복고적이면서도 젊은 감각이 결합되어 있으며, 직접 손으로 문질러 만든 아이위는 부드럽고 섬세하며, 평동 평산에서 온 달콤한 꽃꿀과 갓 짜낸 레몬즙을 함께 곁들여 새콤달콤하고 균형 잡힌 상쾌한 맛을 선사하며, 여름 오후 힐링되는 ‘청량함’이다.

신이구 상산 트레일 입구의 제제커 아이위 전문점은 많은 등산객이 찾는 지정 수분 보충소다. 자이 아리산의 원료를 사용하여 망고 아이위, 동과 레몬 아이위, 파인애플 아이위 빙수 등 창의적인 음료를 만든다.

또한 부드럽고 고소한 크림 필링으로 채워져 단짠의 조합이 잘 이루어진 버터 빵도 놓치지 말 것.

A 샤오량위엔은 아이스크림 전문점이지만, 아이스크림 못지않은 아이위도 인기가 많다. B 타이베이 상산에 위치한 제제커 아이위 전문점의 인기 메뉴 파인애플 아이위이다.

A

A 샤오량위엔 小涼院

Add 타이베이시 다안구 푸싱난로 2 단 148 항 34 호
(台北市大安區復興南路二段 148 巷 34 號)

Open 13:00-21:00, 매주 월요일 휴무

B 제제커 유한공사 (아이위 전문점)

Add 타이베이시 신이구 신이로 5 단 150 항 22 능 65 호
(台北市信義區信義路五段 150 巷 22 弄 65 號)

Open 09:00-21:00

B

사진/ 싸오도우화(騷豆花) 제공 B



도우화

빈틈없는 콩의 향,
달콤하지만 느끼하지 않은 맛

도우화는 콩으로 만든 전통 디저트로 두부와 비슷한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으며, 설탕물, 땅콩, 편위엔 등과 함께 곁들여 먹는 경우가 많다. 타이완에서 도우화는 어린 시절 추억의 디저트일 뿐만 아니라 여름철 빼놓을 수 없는 시원한 간식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이란 자오시에서 온 바이수이 도우화는 최근 가장 화제가 되는 도우화 가게다. 이 가게는 유기농 콩을 쓰는 것을 고집하며, 미네랄이 풍부한 이란의 샘물, 태평양 심층 바닷물을 천연 응고제로 사용하여 콩 향이 진하고 부드러운 도우화를 만들어 낸다. 다른 도우화 가게와 달리 이곳에는 도우화에 고소한 땅콩 가루와 탱탱한 편위엔을 얹어 한 입 먹으면 풍부한 층과 풍미가 느껴진다.

타이베이 동구에 위치한 싸오도우화는 많은 여행객이 꼭 한 번 들러보는 곳이다. 이곳의 도우화는 전통 수제 방식을 고수하며, 질감이 단단하지만 섬세하고 캐러멜 풍미가 나고, 설탕물의 단맛이 적당하여 느끼하지 않다. 싸오도우화의 가장 큰 특징은 계절에 따라 바뀌는 과일 재료에 있다. 망고, 수박, 딸기, 바나나 등을 전통 도우화에 추가하여 다채롭고 신선함을 더해주며, 외국인 여행객은 먹자마자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다.

B 여름에만 시킬 수 있는 싸오도우화의 수박 망고 도우화이다. B-1 도우화에 향긋한 땅콩, 탱탱한 위위안과 편위엔을 추가하여 한 입에 먹으면 클래식한 타이완 디저트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B-1



A 그릇부터 색다른 바이수이 도우화는 이란 자오시에 서 온 인기 가게다.

A 바이수이 도우화 용강적영점 白水豆花 永康旗艦店

Add 타이베이시 다안구 용강지에 34 호
(台北市大安區永康街 34 號)

Open 월 - 목요일 13:00-21:00, 금요일 13:00-21:30,
토요일 12:30-21:30, 일요일 12:30-21:00

B 싸오도우화 騷豆花

Add 타이베이시 다안구 옌지지에 131 항 26 호
(台北市大安區延吉街 131 巷 26 號)

Open 13:00-21:30, 매주 일요일 휴무

센차오

더위를 식히는 검은 기적

센차오를 만드는 허브 약초



D

센차오는 센차오 허브를 삶아 응고시킨 검은 젤리 형태로, 부드럽고 상쾌하며 은은한 허브 향을 가지고 있어 타이완에서 여름철 인기 간식으로 사랑받고 있다. 센차오 자체로 먹기도 하지만, 위위안, 팔, 아이스크림 등의 토핑과 함께 먹으면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타이중 평자 야시장에서 시작된 빠스선 센차오는 센차오를 끓이는 데 여덟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가게에선 응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알칼리성 분말을 사용하는 대신, 오랜 시간 끓여 센차오가 자연스럽게 젤라틴을 방출하도록 하여 완제품의 맛이 더욱 부드럽고 자연에서 오는 달콤함을 더했다. 강력히 추천하는 '추이넨 (萃嫩)' 시리즈는 센차오와 진한 말차 아이스크림 혹은 부드러운 타로 푸레가 어우러져 허브와 디저트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시원한 맛을 선호한다면 얼음을 곁들여 눈꽃 얼음으로 만든 '추이쉴에 (萃雪)' 시리즈를 고르면, 한 입 먹을 때마다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타이중에서 온 미트 프레스 (센위센)는 타이완에서 최초로 센차오 디저트 체인을 발전시킨 브랜드 중 하나이며, 여러 해외 시장으로 진출했다. 대표 상품은 수제 위위안과 년센차오다. 위위안은 쫄깃하고 은은한 토란 향이 나며, 부드러운 센차오와 진한 설탕물이 어우러져 달콤하지만 느끼하지 않고 풍미가 풍부하다.



C

C 빠스선센차오가 센차오와 부드러운 타로 푸레가 어우러져 완벽한 디저트 조화를 이룬다. D 타이완에 유명한 체인점 센위센에서 수제 위위안과 센차오의 조합은 대표 디저트이다.



C 빠스선 센차오 八時神仙草

송엔점 松菸店

Add 타이베이시 신이구 종샤오동로 4 단 553 항 22 놓 12 호
(台北市信義區忠孝東路四段 553 巷 22 弄 12 號)

Open 12:00-21:00

중산점 中山店

Add 타이베이시 중산구 중산베이로 1 단 135 항 5 호
(台北市中山區中山北路一段 135 巷 5 號)

Open 12:00-22:00

D 미트프레스 鮮芋仙

송엔점 松菸店

Add 타이베이시 신이구 종샤오동로 4 단 553 항 10 호
(台北市信義區忠孝東路四段 553 巷 10 號)

Open 평일 11:00-21:00, 주말 12:00-21:00

중산테마점 中山主題店

Add 타이베이시 다둥구 난징시로 18 항 6 놓 1-1 호
(台北市大同區南京西路 18 巷 6 弄 1-1 號)

Open 평일 12:00-22:00, 주말 11:00-22:00

전통의 맛

살의 지혜가 담긴

상쾌한 시원함 한 모금

타이완 사람들은 얼음처럼 차갑고 달콤한 디저트로 여름 더위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지혜가 담긴 전통 음료도 많이 마신다. 대대로 내려오는 허브, 과일 향이 어우러진 이 음료들은 현지인의 추억을 맞볼 수 있어 추천한다.

청두양타오빙은 타이베이에서 전통 있는 브랜드로 소금에 절여 숙성시킨 스타 프루트(양타오)를 설탕과 함께 끓인 후 뜨거운 물로 씻은 다음 얼음과 섞어 짭짤하고 달콤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으로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즐기기 안성맞춤이다. 영업한 지 올해로 60년 된 공위엔산메이탕에서 주력으로 판매하는 오매, 산사나무, 감초 등을 넣어 만든 전통 산메이탕은 진하고 부드러운, 신맛 속에 단맛이 있고 미운에 약간의 스모키 향이나 갈증을 해소하고 입맛을 돋운다. 중약방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음료는 이제 도시에서 보기 드문 음료가 되었다.

쿠차즈지아(쓴차의 집)는 허브티 애호가라면 꼭 들러야 할 곳이다. 이곳의 허브차는 다양한 허브와 중약재를 넣어 끓여 은은한 풀향과 약간 달콤하고 상쾌한 맛이 나며 몸의 열을 내리고 해독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쓴맛에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은 목구멍으로 바로 넘어가는 강한 향의 전설적인 쿠차를 맛볼 수도 있는데, 타이완인들의 눈에는 용기 있는 도전으로 보일 수 있다.

A 청두양타오빙 成都楊桃冰

Add 타이베이시 완화구 중화로 1단 144-1호 (시먼슈퍼상업빌딩)
(台北市萬華區中華路一段 144-1 號
(西門超級商業大樓))

Open 13:00-22:30

B 공위엔산메이탕 公國號酸梅湯

Add 타이베이시 중정구 형양로 2호 (台北市中正區衡陽路 2 號)

Open 10:30-19:30

C 쿠차즈지아 (고차의 집) 苦茶之家

Add 타이베이시 다안구 중샤오둥로 4단 223 49 4호
(台北市大安區忠孝東路四段 223 巷 49 弄 4 號)

Open 11:00-22:00



A



B



C



C-1

A 짭짤하고 달콤한 맛을 내는 양타오빙은 소금에 절인 숙성된 양타오를 설탕과 함께 끓여서 만든다. B 산메이탕과 산메이 맛 아이스크림은 신맛 속에 단맛이 있고 미운에 약간의 스모키 향이 있는 전통 디저트이다. C 허브티 애호가라면 꼭 한 번 시도해야 할 맛이다. C-1 쿠차즈지아에서 또 다른 인기 있는 위터우렌즈탕(芋頭蓮子湯)이 있는데, 안에는 렌즈, 은이버섯 그리고 타로 퓨레가 들어있다.



CREATIVE EXPO TAIWAN WATER SCAPES

2025 臺灣文博會 水風景

08.02^{SAT} ————— 08.11^{MON}
08.05^{TUE} ————— 08.11^{MON}

文化策展區
品牌商展區

松山文創園區
第2-5號倉庫 | 北向製菸工廠

南港展覽館1館1樓

主辦單位  文化部
MINISTRY OF CULTURE

合辦單位  國立台灣工藝研究發展中心
NATIONAL TAIWAN CRAFT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TAICCA 文化內容策進院
TAIWAN CREATIVE CONTENT AGENCY

協辦單位  臺北市
TAIPEI

執行單位  台灣設計研究院
TAIWAN DESIGN RESEARCH INSTITUTE

廣告



타이완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는 방법

문화창의

소품

글 / 장지린 (張芷菱) 사진 / 각 브랜드 제공



A 즈인문창 화산점 知音文創 華山店

Add 타이베이시 중정구 바더로 1 단 1 호 (화산 1914 문화창
의원구 - 레드 와인 팩토리 1F) (台北市中正區八德路
一段 1 號 (華山 1914 文創園區 - 紅酒作業廠 1F)

Open 11:00-21:00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낸 특색 있는 기념품

풍성한 문화유산과 따뜻한 인정을 자랑하는 타이완을 방문한다면, 여행을 추억하고 오래도록 간직할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물론 카메라에 감동적인 순간들을 담은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현지의 특색 있는 기념품을 함께 가져간다면 여행의 완벽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행의 추억을 특별한 보물로 간직할 수 있다.

즈인문창은 타이완 곳곳의 명소와 이미지를 결합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많은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예류지질공원의 여왕머리(女王頭)와 타이완을 대표하는 펄 밀크티 전주나이차(珍珠奶茶) 등을 테마로 한 십자수 DIY 키트가 있는데 여행자들은 직접 수를 놓으며 여행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을 정교하게 표현한 페이퍼 모델링 DIY 키트는 아리산의 만개한 벚꽃과 르웨탄(日月潭)의 산수 풍경 등을 입체적으로 재현하여, 여행자들이 여행의 아름다운 순간을 더욱 생생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뿐만 아니라, 타이완의 전통 미식인 샤오룽바오(小籠包)와 타이완의 독특한 장바구니 치에즈다이(茄芷袋) 등 타이완 고유의 특색을 테마로 한 미니어처 장식품 역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타이완의 특산품, 기념품을 판매하는 편집숍 라이하오는 창의적인 기념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타이완 현지 감성을 담은 매장에서는 타이완 선물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맥주잔이 눈길을 끄는데 실용적이면서도 개성 있는 디자인이 돋보이며 시끌벅적한 타이완식 술자리 문화를 떠올리게 한다. 또한 옛 주택의 창문 문양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컵받침은 복고 감성과 현대적인 미적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아이템으로 굉장히 멋스러운 소품이다. 여행 기념품으로 가장 흔한 배지와 자석도 이곳에서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타이완의 풍경과 건축물 등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된 것으로, 정교하고 실용적이면서도 타이완의 정취를 듬뿍 담고 있어 나를 위한 기념품으로나 선물용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

B 라이하오 來好 LAI HAO

용강 본점 永康本店

Add 타이베이시 다안구 용강제 6 항 11 호
(台北市大安區永康街 6 巷 11 號)

Open 09:30-21:30

시먼 본점 西門分店

Add 타이베이시 원화구 시먼난로 169 호
(台北市萬華區西寧南路 169 號)

Open 11:00-22:00

A 즈인문창은 타이완의 명소와 이미지를 결합하여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B 라이하오에서는 타이완 감성을 담은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타이완 러차오멘(타이완식 술집)에서 볼 수 있는 맥주잔과 옛 주택의 창문 문양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컵 받침 등이 있다.



C 라이하오 용강 본점 來好 永康本店

Add 타이베이시 다안구 용강제 6 항 11 호
(台北市大安區永康街 6 巷 11 號)

Open 09:30-21:30

(HEY SUN 의 쇼핑백, 동전지갑, 양말 등 상품은 라이하오에게 위탁 판매)

타이완 감성이 물씬 풍기는 일상 소품

타이완 감성은 관광 기념품뿐만 아니라 일상 소품의 디자인 속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창의적인 상품들은 여행의 연장선이 되어 타이완 여행의 추억을 눈으로 보고 손끝으로 느끼며 오래도록 일상 속에서 간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오랜 역사와 문화의 도시 타이난을 방문할 경우 역사적 정취가 물씬 풍기는 하야시 백화점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유서 깊은 역사 건축물에 창의적 요소가 결합된 이 백화점은 현재 현지의 창의적인 문화를 알리는 전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인기 상품인 자수 손수건은 타이완의 이미지를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새겨 넣은 디자인으로 휴대용 손수건이나 장식 소품으로 활용하기에 제격이다. 또한 하야시 백화점에서는 진웬싱 프린트 시리즈도 만나볼 수 있다. ‘바닷속 황금’이라 불리는 우위즈(烏魚子), 문화적 자취가 깃든 무대, 타이완의 국민 슬리퍼로 불리는 블루 앤 화이트 디자인의 슬리퍼 등 타이완 고유의 감성을 담은 문양을 캔버스백과 친환경 에코백 등 실용적인 상품에 적용하여 선보이고 있으며, 선명하고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으로 많은 국내외 여행자들의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밖에도 참신한 감각으로 타이완 젊은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 HEY SUN 은 타이완 특유의 주음 부호에서 영감을 받아 ‘타이완 사람들의 비밀문자’로 불리는 기호들을 감각적인 디자인 요소로 변환하여 상품에 적용하고 있다. 동심 가득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는 주음 시리즈는 투명 우산, 휴대용 미니백에서부터 의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에서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색채와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상품으로는 샤오룽바오(餛飩包)와 샤오룽바오(小籠包) 수납 쇼핑백을 꼽을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만두나 샤오룽바오 모양으로 접어서 보관할 수 있으며, 가방에 걸어두면 눈길을 사로잡는 액세서리로 변신한다. 귀여운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해 어른, 아이 모두에게 폭넓게 사랑받는 타이완스러운 인기 상품이다.



C HEY SUN에서 인기가 가장 있는 ‘타이완인의 비밀문자’라고 불리는 주음 부호 시리즈이다.



D

D-1



D 하야시 백화점 林百貨

Add 타이난시 중서구 충의로 2 단 63 호
(台南市中西區忠義路二段 63 號)

Open 11:00-21:00



E

E 진원상 錦源興

Add 타이난시 중서구 중정로 209 항 3 호
(台南市中西區中正路 209 巷 3 號)

Open 수 ~ 일 10:00-18:00, 매주 월, 화 휴무

D 하야시 백화점에서는 진원상의 타이완 국민 슬리퍼 '란바이튀(藍白拖)' 프린트 디자인 캔버스백도 구매할 수 있다. D-1 하야시 백화점에서는 타이완 감성을 담은 일상 소품도 많이 있다. E 황화풍령목(黃花風鈴木)은 타이난의 봄으로 상징하며, 진원상의 프린트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창작이다.

타이난에서 맛있는 여름나기

타이완은 자이 (嘉義) 를 경계로 북쪽은 아열대, 남쪽은 열대 기후로 나뉜다. 나는 2016년 겨울과 봄을 타이베이에서 이듬해 여름은 남부의 타이난에서 보냈다. 타이난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돈을 환전하려고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은행을 찾았다. 은행 가는 길에 땀을 뻘뻘 흘리며 몇 번이나 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하고 다시 나섰지만 찌는 듯한 더위를 견디지 못해 결국 다섯 번째 시도 끝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기억이 있다.

타이난 생활 8년 차인 지금,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빠바오뽀 위엔자이웨이 귀화지에 본점

Add No. 99, Section 2, Guohua St, West Central District, Tainan City, 700

빠바오빙 (八寶冰)은 얼음 위에 팥, 녹두, 율무, 연꽃씨, 타피오카, 탕위엔 등 다양한 토핑을 올리고, 흑당 시럽을 곁들인 타이완의 전통 빙수다.

이곳은 유명 관광지인 귀화제에 위치한 빙수 가게로, 3대에 걸쳐 50년 넘게 이어져 온 곳이다. 타이난 사람들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즐겨 먹어 온 '소울 빙수'로 불린다. 다양한 토핑 중에서 다섯 가지를 고르면 되는데, 선택한 토핑에 따라 빙수의 맛이 달라지는 것이 빠바오빙만의 매력이다.

다다 추천 조합

탕위엔 2+ 녹두+편자오+타로 (중국어: 兩份湯圓+綠豆+粉角+芋頭)

특히, 졸깃졸깃 수제 탕위엔 (대만식 새알)이 인상적이다.





선 아이스 Sun Ice

Add No. 41, Section 1, Minquan Rd, West Central District, Tainan City, 700

1957년 오픈한 선 아이스는 타이완 전통 아이스크림 가게로 모든 아이스크림을 가게에서 직접 만든다. 가장 유명한 메뉴로는 정사각형 모양의 아이스크림 (민난어: 草湖芋仔冰, 차오오 오아뽕) 과 곱게 간 우유 빙수 (牛乳霜, 뇨루샹) 가 있으며 이 두 가지는 선 아이스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메뉴다.

특색 있는 아이스크림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오랜 시간 동안 남녀노소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다다 추천 조합

차오오 오아뽕 (草湖芋仔冰): 타로 (芋頭), 팥 (紅豆), 백향과 (百香果), 파인애플 (鳳梨)

뇨루샹 (牛乳霜): 팥 토핑 우유 빙수 (紅豆牛乳霜)

타이난 롱 스토리 Tainan Long Story

Add No. 99, Section 2, Zhongyi Rd, West Central District, Tainan City, 700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핫한 타이난 젤라또 맛집, 사진 맛집으로도 유명한 타이난 롱 스토리.

일본 건축 거장 소우 후지모토 (藤本壯介) 가 설계한 이곳은 전통과 현대, 지역성과 건축미가 어우러진 타이난의 복합 문화 공간이다. 타이난의 골목 문화를 수직적으로 재해석한 독특한 구조와 스토리텔링이 특징이며 이곳에서는 음료와 디저트, 다양한 젤라또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시즌 한정 메뉴나 메뉴엔 없는 히든 젤라또까지 있어, 그야말로 오감을 만족시키는 타이난의 특별한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다다 추천 조합

구아바, 얼그레이 밀크티, 티라미수, 럼 레이즌



다다킴

타이완의 남부, 타이난에 거주 중인 8 년차 프로 생활러.
타이완인 남편 ED 와 타이완의 생활, 다양한 문화, 여행과 미식을 주제로 한 11 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유튜브: 跟著多多一起走 Dada Kim
인스타그램: conmigo_dada
네이버 블로그: 보헤미안 다다킴



이란의 돌고래

귀산도에서 만난 생명의 파도

자연은 때때로 우리가 잊고 있던 감각을 일깨워준다. 그 감각이란, ‘경이로움’이다. 타이완 동북부, 이란(宜蘭)의 바다에서 경험한 돌고래 탐사와 귀산도(龜山島) 일대의 생태계는 바로 그런 감정을 선물해 주었다.

우리는 흔히 돌고래나 고래 관찰을 떠올릴 때 멀리 하와이나 노르웨이, 혹은 아이슬란드를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비교적 가까운 타이완에서도 이런 고래 탐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우스항(烏石港)을 중심으로 한 고래·돌고래 탐사는, 자연과 공존 하려는 타이완의 노력과 풍부한 해양 생태계의 진면목을 보여 준다.



김주혁

영상감독
타이완에 군것질하러 가자 저자
페이스북 소소한대만여행 운영자
에스 24 전 인터뷰 메인감독

인스타그램 @kim_juhyeok
소소한 대만여행, 台灣小旅行
FB: www.facebook.com/taiwanholic/

돌고래의 고향, 이란 해역

타이완 동북부 해안은 타이완 해협과 태평양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 해양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다. 그중에서도 우스항에서 출발하는 고래·돌고래 투어는 계절을 불문하고 다채로운 종류의 해양 생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회색돌고래, 병코돌고래, 참돌고래 등 약 10 여 종 이상의 돌고래가 관찰된다. 관찰 확률은 약 95%에 달하며, 운이 좋으면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 단위로 무리를 지어 유영하는 장관을 볼 수 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서 이들을 가까이 마주하면, 그 존재만으로도 숨이 멎을 듯한 감동을 받는다. 때로는 배 옆으로 다가가 파도를 타거나, 동료들끼리 장난치듯 물 위로 튀어 오르는 모습은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는 인사처럼 느껴진다.

타이완 정부와 민간 업체들은 이러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시기에는 탐사 횟수를 제한하거나, 돌고래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고출력 소리를 사용하지 않는 등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탐사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고래 관광을 넘어선 생태 체험

우스항에서 출발하는 해양 탐사 투어는 단순히 돌고래를 '구경'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바다와 생명, 그리고 환경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게 만드는 생태 체험이다. 타이완은 이러한 해양 자원을 단순히 관광의 수단으로 소비하지 않는다. 지역 해양 전문가와 협업하여 해양 생물의 습성과 행동을 설명해주며, 관찰 중에도 생태 윤리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돌고래 무리 근처에선 선박 속도를 줄이고, 불필요한 접근은 삼가며, 동물의 반응을 우선으로 행동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지역 가이드들은 해양 쓰레기 문제나 기후 변화가 돌고래와 귀산도의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며,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선 생태 교육의 장으로 이 투어를 활용하고 있다.

타이완 바다에서 마주한 교감의 순간

직접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아갔을 때, 처음에는 이 푸른 수평선 위에서 과연 돌고래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곧, 누군가 외친다. "저기 있다!"

그리고 정말이었다. 수면 위로 반짝이는 물보라와 함께 희색빛 몸통이 튀어 오르고, 이어 여러 마리가 물결을 따라 유영한다. 그 장면 앞에서 말은 사라지고, 사진기를 꺼낼 생각도 잠시 미뤄둔 채 멍하니 바라보게 된다. 그 순간, 이 바다는 우리와 별개의 공간이 아니라, 함께 숨 쉬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생명에 대한 감각을 되찾는 시간. 바로 그게, 타이완 이란 해역에서의 돌고래 탐사라는 경험이 주는 가장 큰 가치일 것이다.

마무리하며

이번 탐방을 통해 깨달았다. 여행은 단지 풍경을 보고 음식을 맛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때로는 말없이 다가와주는 생명의 시선을 마주하고, 그것이 품은 바다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진짜 감동이 시작된다. 타이완 여행 중 일정이 허락된다면 꼭 한 번 우스항에서 돌고래 탐사를 떠나보시길 권한다. 그리고 귀산도를 바라보며 자연의 강인함과 섬세함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란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커대한 생명의 파도라마는, 분명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A 이란 귀산도 일대의 돌고래 투어는 계절을 불문하고 다채로운 종류의 해양 생물을 만날 기회가 있다. B 투어에 해양 전문가들이 해양 생물의 습성과 행동을 설명해주며, 관찰 중에도 생태 윤리를 강조한다. C 이란 지역에는 회색돌고래 뿐만 아니라 약 10여 종 이상의 돌고래가 관찰된다.

가자! 금빛 반짝이는 타이완 해변으로

동서남북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타이완. 행정구역은 모두 22개로 나뉘는데 난터우현 한 곳만 빼고 모두 바다와 접해 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 차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바다 풍경을 볼 수 있다. 크루즈나 화물선이 드나드는 항만 시설이나 어선과 요트가 정박해 있는 항구도 있지만 한국과는 다른 분위기와 느낌의 해변 명소도 많다. 타이완에서 꼭 가 봐야 할 해변과 해수욕장 몇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카이랑 (노해랑)

대만에서 여행·문화 주제의 SNS 채널 운영자이면서 세계테마기행 (EBS1), 포르모사순례단 (EBC) 등 여행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대만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다.



타이완의 푸르른 바다와 열대풍의 기후가 느끼며 마치 동남아의 어느 섬에 온 듯한 착각을 하게 된다.

먼저 타이완 최북단에 푸룽 (福隆) 이라는 곳 있는 해변가를 추천한다. 타이베이에서 열차로 약 1 시간 거리로 가깝다보니 타이완 북부 지역의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맨발로 바닷가를 거닐자니 발아래 밟히는 모래의 감촉이 무척 부드럽다. 한국 해변가의 모래보다 입자가 더 곱다는 것이 한눈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 햇볕을 받은 모래가 마치 스스로가 머금고 있다가 자연 빛을 내는 것처럼 찬란한 금빛 광채를 낸다. 푸룽 해변가는 해수욕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모래 조각 축제인 ‘푸룽 모래 조각 예술 시즌 (福隆沙雕藝術季)’가 열리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매년 5-9 월 사이에 개최되며, 매회마다 특정 테마를 선정하여 그에 걸맞는 조각 작품들이 선보인다. 이곳 푸룽해수욕장 인근에는 푸룽 도시락으로 유명한 전통 먹거리 시장은 꼭 들러야 할 코스다. 시원한 해변 풍경과 바다 내음이 가득한 속에서 먹는 간식은 더욱 맛난다. 또 자전거 도로와 철도 터널을 활용해 개설한 ‘옛 차오링 터널 (舊草嶺隧道)’이 있어 가족 단위 또는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가 높다.

타이완에서 고즈넉한 해안 풍경을 보고 싶다면 다른 생각을 할 것도 없이 ‘치진 해수욕장 (旗津海水浴場)’을 가 보라. 타이완 최대 항구 도시인 가오슝 (高雄) 남서쪽 지역에 있는 치진 (旗津)은 폭이 좁고 길다란 반도를 하고 있다. 가오슝항에서 페리로 15 분 거리이면 도착할 수 있다. 얼핏 보면 폭이 다소 넓은 강을 큰 나룻배로 오가는 식이다. 페리를 타고 치진 선착장에 내려서 살펴보면 가오슝 도심과는 달리 어느 한적한 휴양지에 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 가오슝 지역민들에게는 산책 코스로도 사랑받고 있다. 이곳의 해변은 비교적 넓고 평탄하여 가족 여행 코스로도 아주 적합하다. 해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도로와 해안 산책로도 무척 아름답다. 특히 석양이 질 무렵, 치진 등대까지 올라가면 가오슝 항구와 바다가 어우러지는 장관이 기다리고 있다.

타이완의 대표적인 해변 휴양지로는 타이완 최남단에 위치한 킨딩 해수욕장 (墾丁海水浴場)을 꼽을 수 있겠다. 푸르른 바다, 부드러운 백사장, 그리고 열대풍의 기후가 어우러지면서 마치 동남아 지역에 있는 어느 섬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킨딩 국립공원 (Kenting National Park) 안에도 여러 크고 작은 해수욕장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완 (大灣) 해변’은 서핑과 스노클

링, 해수욕을 한번에 즐길 수 있다. 매년 4월에 열리는 킨딩 음악 축제 ‘타이완 음악 페스티벌 (台灣祭, Taiwan Music Festival)’을 즐기고자 타이완 전역의 20-30 대 젊은 층의 방문객들이 찾아온다. 해가 저물면서 붉게 물들어가는 해변가의 노을 풍경과 매대의 불을 밝히는 야시장 풍경도 이곳의 또 다른 매력이다.

타이완 본섬에서 타이완 해협 방향으로 조금 떨어진 작은 섬이 하나 있다. 바로 샤오류추 (小琉球). 이곳은 아름다운 산호초 해안과 바다거북 서식지로 잘 알려져 있다. 타이완에서 유일하게 산호초로 이루어진 섬이면서 스노클링과 다이빙을 통해 살아있는 해양 생태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해양 생물 보호 지역인만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 생태계 환경 교육 여행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자전거나 전동 스쿠터를 이용할 경우, 한나절 투어 코스로 섬을 둘러 볼 수 있다.

타이완 동부 화롄 (花蓮)에 위치한 칠성탄 (七星潭)은 동부의 보석이라고 칭할 정도로 다른 해변과 분위기가 사뭇 다른 해안가이다. 모래가 아닌 자갈이 수 킬로미터 길게 이어져 있는 이곳의 바다빛은 매우 짙다. 파도가 일렁이는 앞바다의 수심이 이미 수 백미터에 달하는 태평양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해변가 자갈들 사이를 드나들면서 내는 파도 소리는 여느 해변가보다 우렁차다. 칠성탄에서 맞이 하는 해돋이는 그야말로 장관이다. 자전거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어 타이완 라이더들이 타이완 일주를 할 때 반드시 들러서 인증샷을 찍는 곳이기도 하다. 자전거를 타고 동부 해안가를 따라 다니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타이완의 해변은 다채롭다. 타이완 북부 도시 근교의 안식처, 파도와 음악이 어우러진 남부 해변의 열기, 태평양을 품은 동해안의 절세풍경까지. 연중 내내 자연과 힐링, 체험과 낭만이 공존하는 바다를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번 타이완 여행 일정에 가까운 해안가를 따라 한번 둘러 보는 건 어떨까? 은빛 푸르름의 출렁임과 금빛 반짝임이 가득한 해안가에서 가서 아열대의 자연 바람과 파도 소리를 한껏 담아 보자. 그곳에서 타이완의 숨어 있는 특별한 매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이후 진미연산

內金面山

다툼산 大屯山 1092M
치싱산 七生山 1120M

타이베이시 네이후구에 위치한 이곳은 타이베이 중심부에서 가깝다.
청나라 때 채석장이었던 곳으로 아직도 많은 유적이 남아있다.
전체 능선과 산 정상은 거대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지질에 석영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산꼭대기의 바위는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난다.
표고는 해발 258미터지만,
타이베이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훌륭한 전망이 있다.
진미연산은 운동하고, 그림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비밀정원이다.

서쪽으로는
관음산이 보인다

觀音山 616M 관인산





Profile
MINNAZOO / 선은민
(沈恩民)

타이베이 네이후에 와서 생활하는 장화 사람. 디자인 회사에서 아트 디자이너로 일했던 그는 산과 자연을 좋아하며, 지금은 글과 그림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진미연산

金面山

258 M

동쪽으로는 지룽산,
지우편산성이 보인다

지룽산

基隆山

588 M

대암벽

大山石壁

동호

東湖

난강산

南港山

373 M

바다

八堵

우두

五堵

시즈

汐止

난강

南港

시후역

西湖站

네이후

내호

송산

松山

쓰서우산

四獸山

「FOUNTAIN 신활수(新活水)」에 대해

《FOUNTAIN 신활수(新活水)》의 각 호의 주제는 사회문제와 밀접한 내용으로 문화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현상을 깊이 탐구하고 발굴하며 지역, 영역, 세대를 뛰어넘은 정신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강렬한 시각적 미학 요소로 잡지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며 문화적 대화를 구축하는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다.

©MINNAZOO

태양의 고향

이민용

매일
해가 뜰 무렵
핑둥 동쪽 바다에서
황금빛 희망이 우리를 비춘다
산의 경치
들판의 경치
뛰어나고
푸른 게 마치 일일초 같다

每一工
日頭出來的時
屏東東邊的海面
金色希望照著阮
山的景色
田園的景色
真出色
青翠親像日日春

매일
해가 질 무렵
핑둥 서쪽 바다에서
따뜻한 색깔이 우리를 비춘다
길거리 풍경
농촌 풍경
운치 있고
아름다운 게 마치 월계화 같다

每一工
日頭落去的時
屏東西邊的海面
溫暖色彩在看阮
街市的景致
田莊的景致
真標緻
美麗干若四季紅

핑둥, 태양의 고향
핑둥 사람들의 사랑이 가득 찬
핑둥, 사계절이 매력적인
타이완 남부의 살기 좋은 곳

屏東 日頭的故鄉
屏東人滿心的所愛
屏東 四季充滿光彩
台灣南邊的好所在



Profile 이민용 (李敏勇)

타이완 핑둥 출신. 1947년 가오슝에서 태어났으며 대학에서는 역사를 연구했다. 현재는 타이베이에 거주하고 있다.

한평생 문학을 직업으로 삼았으며, 일찍이 시 간행물 《삿갓》 편집을 주관했고, < 타이완 문예 > 사장과 < 타이완 문예 교류회 > 회장을 맡았다. 《구름의 언어》, 《어두운 밤》, 《진혼가》, 중국어-영어 대조 시선 《사모와 예수》 등의 작품과 산문, 소설, 문학평론과 사회평론집 등 90여 권을 출판했다.

우용평평론상, 우취류신시상, 라이허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제 11회 국가문예상 수상, 2022년 제 4회 행정원 문화상을 수상했다.

NANGAN

BEIGAN

JUGUANG

DONGYIN



馬祖
pha jiu



馬祖國際藝術島 MATSU BIENNIAL 2025 9.5 – 11.16

너의 바다, 나의 육지 YOUR SEA MY LAND

“Sióh-áLia-á!” 다 함께 오라! 그물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살리고, 그물 한 장이 섬 하나를 지탱합니다. 대나무 말뚝 하나하나가 바닷속에 박히고, 작품 하나하나가 일상 속에 스며듭니다. 수많은 손길이 말뚝을 박고, 그물을 짜며 삶과 예술을 함께 엮어냅니다. 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순풍에 잔잔한 바다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指導單位：文化部 / 交通部 / 交通部觀光署 / 國家發展委員會 / 陳雲生立委辦公室 / 連江縣議會 主辦單位：連江縣政府 / 中華文化總會 協辦單位：交通部觀光署馬祖國家風景區管理處 / 陸軍馬祖防衛指揮部 / 國立新竹生活美學館 / 台灣電力股份有限公司 / 金港通航業股份有限公司 / 南竿鄉公所 / 北竿鄉公所 / 莒光鄉公所 / 東引鄉公所 / 馬祖日報社 / 馬祖酒廠實業股份有限公司 承辦單位：連江縣政府文化處 / 馬祖國際藝術島專案辦公室 贊助單位：合作金庫商業銀行 / 臺灣證券交易所 / 證券櫃檯買賣中心 / 臺灣集中保管結算所 / 臺灣期貨交易所 / 中華電信股份有限公司 / 台灣世曦工程顧問股份有限公司 企業夥伴：iPASS一卡通 / 臺灣精誠全家便利商店 / UNIQLO TAIWAN LTD. / 去趣 / yoxi / iRent 特別感謝：公益財團法人日本台灣交流協會台北事務所 / 台灣觀光協會 / 中華郵政股份有限公司臺北郵局 總策劃：吳漢中（社計有限公司）行銷總策：程詩郁（左腦創意）總策劃：劉慧婷（白日夢創意）視覺策劃：馮宇（IF OFFICE）藝術夥伴：駁二藝術家進駐計畫 攝影：陳合成老師（攝影）

OMAR
SINGLE MALT WHISKY
싱글 몰트 위스키

台灣 好威

타이완산 싱글 몰트 위스키



버번통 꽃향



세리 과일향



스모키향

타이완의 열대 풍미, 한입마다 놀라움



미성년자 음주금지.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